

전주시, 국가 공모사업 상시 발굴

사전 모니터링·공조체계 강화... 정치권과 협력해 대규모 사업 발굴에 힘쓰기로

전주시가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전주발전을 앞당길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상시 발굴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올해 보다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기관 등의 정기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부처와 정치권 등 중앙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책동향 자료를 수집하는 등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주시 전 부서의 출연 기관, 정책연구소 등 관계 전문가 등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전방위

적 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과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발굴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회와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올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 245억원 이상 확보(1차년 국비확보액)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으며 3월 현재까지 53개 사업 1차년도 국비 200억원(국비총액 460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 가운데 이달 중순 기준으로 전통문화융합자원발굴 사업 외 9건(국비총액 19억)이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으며 오는 4월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다양한 국가 공모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 캠페인 실시

전주시보건소, '제11회 암 예방의 날' 맞아 유관기관과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 암 검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는 21일 '제11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풍납문 광장 일대에서 '암 예방 및 국가 암 검진사업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했다.

캠페인에는 전주시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지사, 검진기관 등 전주지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일반시민과 주변상인, 전주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국가 암 검진사업은 「암 관리법」에 의해 의료 접근도가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암(만40세 이상 2년 주기)과 간암(만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 주기), 대장암(만50세 이상 1년), 유방암(만40세 이상 2년), 자궁경부암(만20세 이상 2년) 검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1999년부터 실시됐다.

또한 참여기관들은 이날 캠페인에서 패널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암 예방 수칙과 건강생활 습관 실천,

정기적인 암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으며 암 예방과 검진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암 예방의 날 캠페인과 함께 운동·영양·구강·심뇌·금연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방문보건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장병호 전주시보건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아야만 검진 후 2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받았을 경우 일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만 50세부터는 매년 대장암 검진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의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원치 가능한 것으로 보고돼 있어 조기검진을 통한 치료만이 암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검진팀(063-281-6351~3)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화재대피 훈련 실시

최근 전주시민들의 화재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했다.

전주시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입원한 효사랑가족요양병원과 고충진료인전복은행본점, 공공기관, 대형마트, 어린이집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전국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훈련을 했다.

전국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은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화재 시 건물 내 주민 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요양병원 내 화재사고가 발생할 것을 가정해 실시된 시범 훈련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여해 일반환자를 부축해 대피하도록 도왔다.

또 거동불능환자의 경우 들것에 싣고 안전한 곳까지 옮기는 등 환자들이 대피동선과 화재사고 시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는 21일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주시 일원에서 전국 민방위의 날 화재 대피훈련을 했다. 특히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내 화재사고가 발생할 것을 가정해 실시된 시범 훈련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직접 참여해 일반환자를 부축해 대피하도록 도왔다.

베트남 아내 폭행 4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1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2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7시30분께 자택에서 아내 B(24)씨가 모국어로 말하자 이를 트집 잡아 B씨의 뺨을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허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성민 기자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전주시, 6월 15일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고충상담창구도

전주시가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를 점검, 피해자 2차 피해 예방과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신고센터는 직장내부 절차에 따른 성희롱 피해신고를 주저해 온 피해자들이 2차 피해에 대한 두

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과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공동 운영 △필요시 내방상담 및 우편접수 △비공개 내 부전자문서 등을 통해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원 등의 초기상담 절차를 진행, 피해 직원에게는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법률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정서·심리적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주지역 성폭력피해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해 성폭력 피해 신고단계부터 수사, 소송진행, 피해 회복까지 모든 지원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말 'me too with you' 교육을 시작으로 고위공무원 등을 포함한 신규임용 공무원, 비정규직 공무원 등 전주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확대·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지방세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전주시는 20일과 21일 이틀간 완산·덕진구청 회의실에서 지방세업무 담당공무원 1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2018년 지방세 직무교육'을 했다.

직무교육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지방세 운영 결과를 되짚어 보고 2018년도 지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와 세정혁신을 목표로 적극적·능동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박차를 다잡았다.

또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 사항을 중

심으로 세부담당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관련 법령들을 교재로 발간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무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이 진행됐다.

시는 매년 직무교육을 통해서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 우수 징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세무공무원에게는 지방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있다. /채규남 기자

日 이시카와현 간호대 연수단, 전주시보건소 방문

일본 이시카와현 간호대학 연합 연수단이 전주시보건소를 찾아 전주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배웠다.

전주시보건소는 일본 이시카와현 간호대학 연합 연수단이 전주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전반적 체계와 운영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주시보건소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가나자와 의과대학 등 일본 이시카와현 내 4개 대학 학생연합과 교수 2명 등 16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은 이번 전주방문에서 장병호 전주시보건소장으로부터 전주시의 보건정책과 보건의료현황 및 운영체계, 공공의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건강증진센터와 금연클리닉, 맷살 프로그램 등 보건소 내 시설들을 관심 있게 둘러봤다.

특히 연수단은 높은 건강검진률과 치매관리사업,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등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 양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히사에 스즈카다 교수는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을 위한 많은 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해 놀랐다"며 "일본에 돌아가면 치매정책, 노인건강 프로그램 등의 정책 건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